

# 현안과 과제

■ 한미 경제협력 추이와 현안 과제  
- 한·미 정상회담 개최

## 1. 회담 일정과 주요 의제

- (한미정상회담 일정) 박근혜 대통령은 25일부터(1박 2일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여 25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세부일정 :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5일부터 1박 2일간 한국 서울을 공식 방문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25일에 개최할 예정
  - 25일에는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 개최 후 회담 결과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 용산 전쟁기념관 헌화, 한국의 교육 및 문화 이벤트 참석 등을 할 예정임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6일에 재계 주요 인사들과 경제현안 협의, 주한미군 기지 방문 및 격려 후 저녁에는 다음 순방국(말레이시아)으로 이동할 예정
  
- (주요 의제)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재확인,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오바마 정부 2기 출범 후 양국간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및 세계 경제 체제에서의 양국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과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안보 현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역 및 통상관계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2. 한미 경제협력 추이와 경제 동조성

### ① 무역과 투자 부문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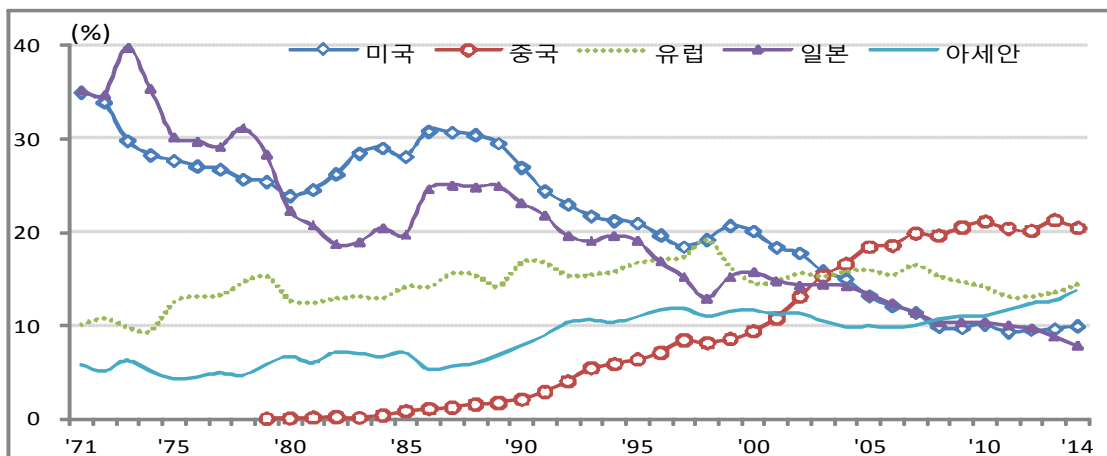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협력) 한미 경제 관계는 1980년대 이후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냄. 단 한국의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우회수출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 한국과 미국의 무역과 투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한국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30%에서 2013년 10%미만으로 하락
-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말 40%대에서 2013년 14%대로 하락
- 미국 무역과 투자에서 한국의 비중은 각각 2.7%(2013년), 0.8%(2012년)으로 미약
- 단, 우회수출 등을 고려한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여전히 높음

### ○ 한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축소

- 한국의 대미 무역 규모 : 한국의 대미 무역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요성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
- 한국의 대미 무역 비중 추이를 보면 1986년 30.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총 무역 규모의 9.6%
- 이에 반해 중국의 비중은 1986년에 1.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에 한국 총 무역 규모의 21.3% 차지
- 미국은 1971년~2003년 기간 중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고 2013년에 1,035억 달러로 전체 비중이 중국, 유럽, 아세안에 이어 4위로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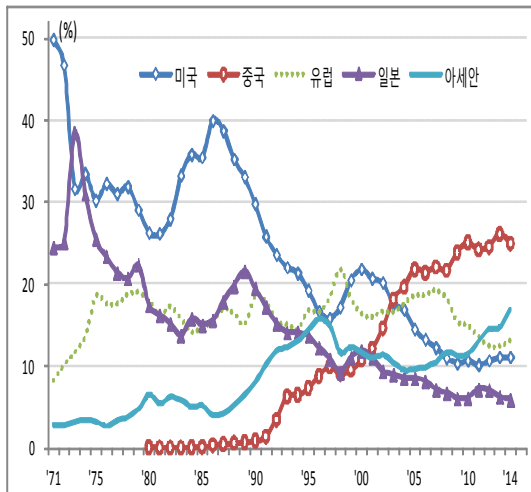
< 한국 무역 중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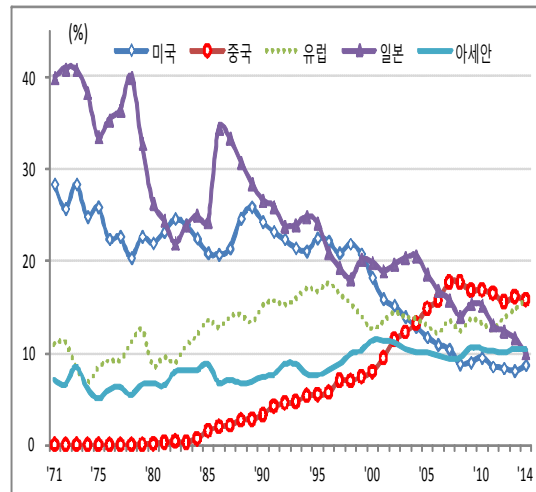
- **한국의 대미 수출 추이** : 수출 비중 역시 지속 하락
  - 한국의 대미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부터 2002년까지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중국에 이어 2위, 2004년부터는 중국, 유럽에 이어 3위로 낮아지고 2008년에는 아세안에 이어 4위까지 떨어짐
  -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3년 621억 달러(11.1%), 대중국 수출액은 1,459억 달러(25.2%), 대유럽은 692억 달러(12.4%), 대일본은 347억 달러(6.2%) 임
- **한국의 대미 수입 추이** : 수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
  - 한국의 대미 수입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는 일본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유럽, 중국에 이어 4위로 낮아졌음. 아세안까지 고려하면 5위로 순위가 떨어짐
  - 현재 대미 수입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84억 달러(8.7%), 대중국 831억 달러(16.1%), 대유럽 754억 달러(14.6%), 대일본은 600억 달러(11.6%), 대아세안 533억 달러(10.3%) 임

< 한국 수출 중 주요국 비중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한국 수입 중 주요국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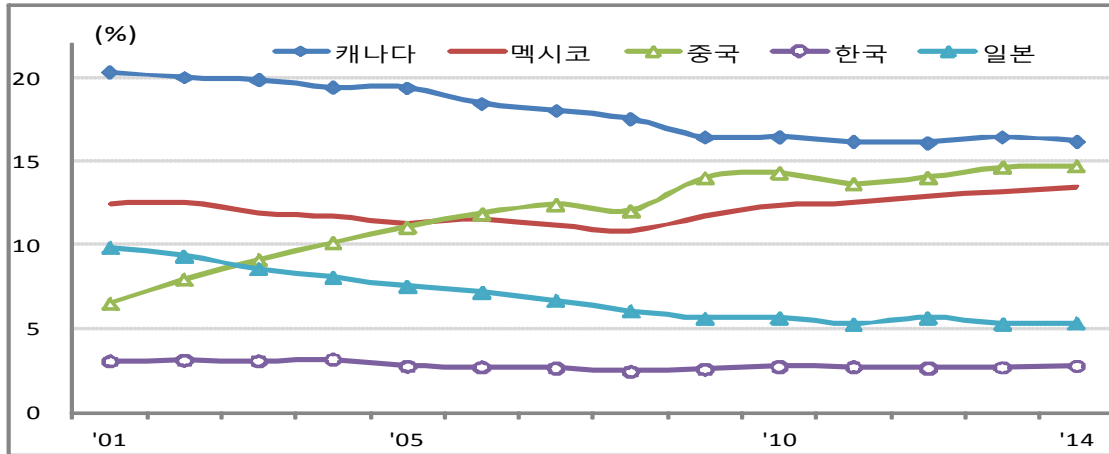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 미국의 대한국 무역 비중 하락

- **미국의 대한 무역 규모** : 수출과 수입의 절대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미국의 무역 파트너로 볼 때 한국의 중요성은 점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무역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대캐나다 6,323억 달러(16.4%), 대중국 5,624억 달러(14.6%), 대멕시코 5,066억 달러(13.2%), 대일본 2,037억 달러(5.3%), 대한민국 1,038억 달러(2.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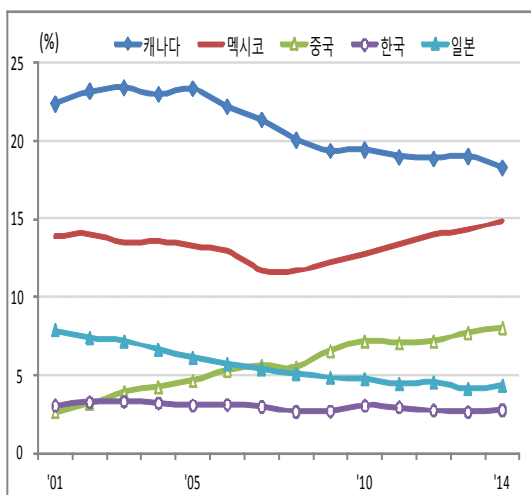
< 미국 무역 중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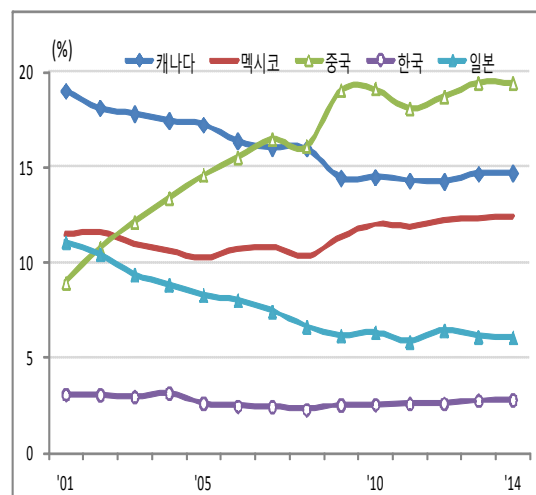
- 미국의 대한국 수출 추이 :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
  -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2002년과 2003년에 비중이 각각 3.3%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2.6%로 낮아짐
  -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2013년 기준으로 3,002억 달러(19.0%), 대멕시코 2,262억 달러(14.3%), 대중국 1,220억 달러(7.7%), 대일본 651억 달러(4.1%)임
- 미국의 대한 수입 추이 : 수입 비중 하락 지속
  - 미국의 대한국 수입이 총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과 2002년 각각 3.1%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2.7%(622억 달러)로 낮아짐
  -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2013년 4,404억 달러(19.4%), 대캐나다 3,321억 달러(14.6%), 대멕시코 2,805억 달러(12.4%), 대일본 1,385억 달러(6.1%)임

< 미국 수출 중 주요국 비중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미국 수입 중 주요국 비중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 중요성은 우회수출 등을 통해 유지

- 미국의 대세계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한국은 중국 등의 제3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제3국은 이를 가공하여 미국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우회 수출 증가 예상<sup>1)</sup>
  -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ASEAN-5 등은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최종재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
  -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세계로 수출하는 중간재<sup>2)</sup> 중 60.2%에 해당하는 1,754억 달러를 중국과 아시아개도국, 일본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제권으로 수출
- 특히,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을 통해 한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중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율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증가율은 2000년 이후 0.82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부가가치 기준으로 집계<sup>3)</sup>한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은 대중국 수출 비중보다 커, 한국의 수출 측면에서 중국 못지않게 미국의 중요성도 부각됨
  - 2009년도 수출총액 기준으로 측정한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은 12.1%로 대중국 수출 비중의 2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그러나 우회 수출을 고려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으로 측정하면,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 비중은 19.4%로 대중국 수출 비중의 14.9%보다 큼

< 한국의 대주요국 중간재 수출(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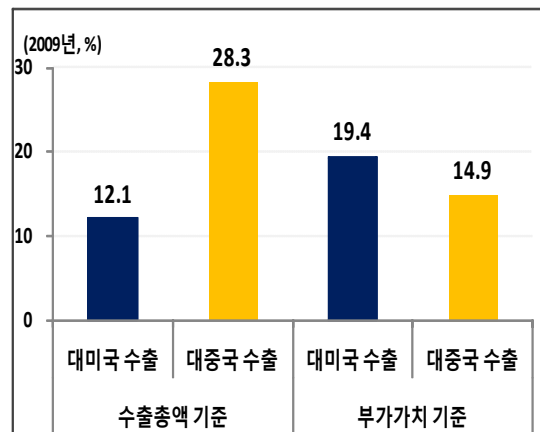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

수출 대상국	중간재 수출 규모	국가별 비중
세계	291.2	100.0
중국 <sup>1)</sup>	110.2	37.8
아시아 개도국	45.3	15.6
NAFTA <sup>2)</sup>	34.2	11.7
유럽	30.4	10.4
일본	19.6	6.7
기타	51.5	17.8

자료 : UN Comtrade.

- 주 : 1) 중국에는 홍콩이 포함됨.
- 2)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포함됨.

<집계방식에 따른 한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 비중 변화>



자료 : OECD-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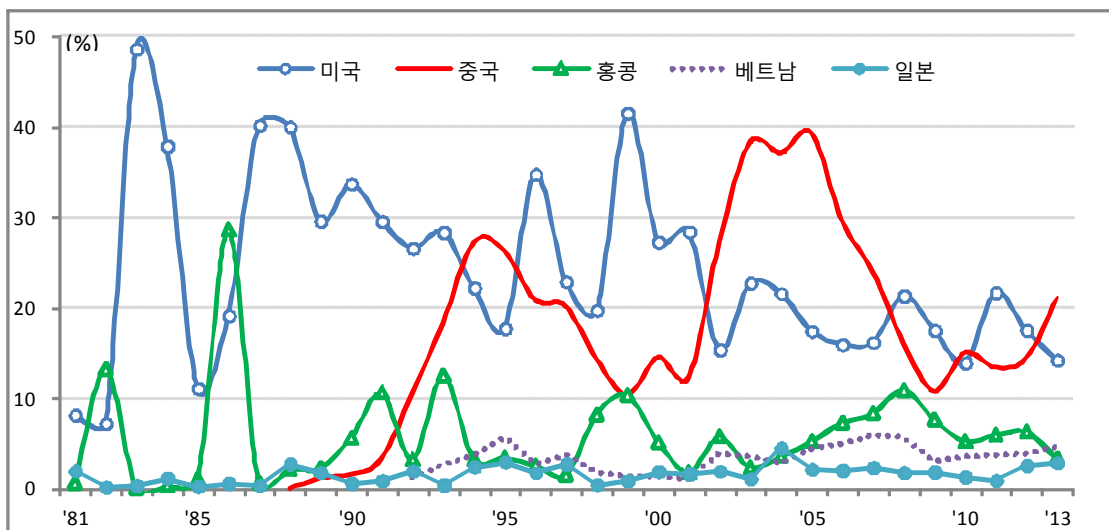
- 주 : 비중은 한국의 총수출 대비 각국에 대한 수출 비중임.

1) 세계 총수입(약 18조 4300억 달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12.7%, 중국 9.9%, 독일 6.2%, 일본 4.8% 순임.  
 2) 중간재 품목 기준은 BEC 코드 상 121(음식료), 22(일반산업), 322(석유화학), 42(자동차를 제외한 자본재), 53(자동차) 분야의 중간재임.  
 3) OECD는 2013년 1월,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우회 수출하는 경로인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는 부가가치 창출 기준의 수출입 규모 자료(「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를 발간.

○ 한미간 투자 관계도 약화

- 한국의 대미국 투자 : 한국의 총 해외 투자 중 대미국 투자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 하락하고 있어 투자 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중요성도 하락
  - 한국의 대미국 투자액이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에 41.5%까지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 14.2%까지 줄었고 순위도 중국에 이어 2위 하락
  - 한편, 미국은 2011년과 2012년에 중국을 제치고 투자 비중이 1순위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한미 FTA 추진과정의 기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대미국 투자액은 2013년 34.2억 달러(14.2%), 대중국 50.5억 달러(21.0%), 대호주 20.0억 달러(8.3%), 대베트남 11.2억 달러(4.6%), 대홍콩 8.0억 달러(3.3%), 대일본 6.9억 달러(2.9%) 임
- 미국의 대한국 투자 : 미국의 총 해외 투자 중 대한국 투자 비중은 1982~2012년 기간 중 0%대에 머물러 있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유지4)
  - 미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2012년 0.8%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미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 아님

< 한국의 주요국 투자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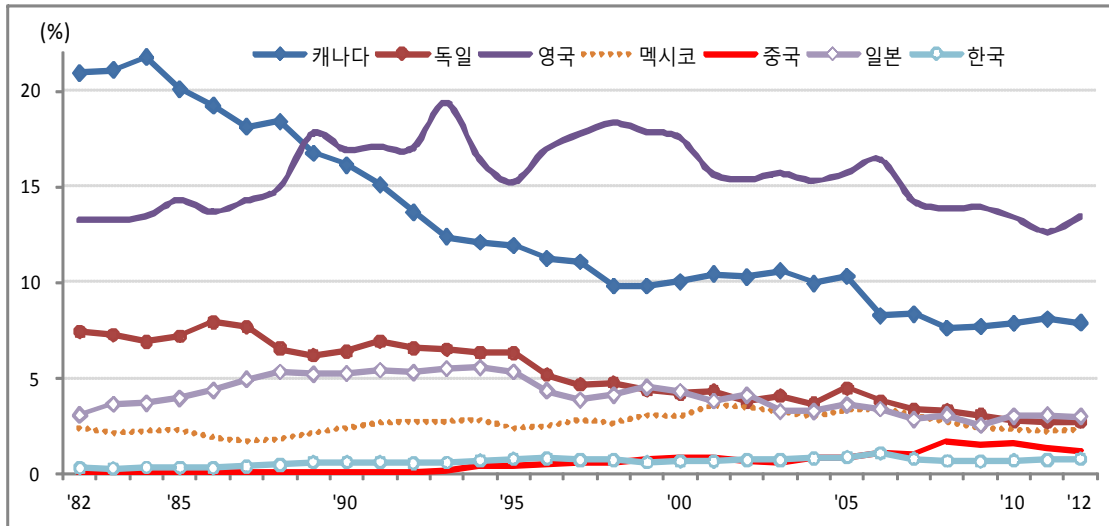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4) 미국의 대 주요국 직접 투자는 U.S. Direct Investment Position Abroad on a Historical-Cost Basis(US BEA).

- 미국의 대영국 투자 비중은 2012년 13.4%, 대캐나다 7.9%, 대독일 2.7%, 대일본 3.0%, 대중국 1.2%, 대홍콩 1.1%<sup>5)</sup>

< 미국의 주요국 투자 비중 추이 >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이용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② 경제성장률 동조

- 미국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2013)이 위기 이전기간(2000~2008)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발생 전후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전 기간을 두 구간(2000~2008년, 2009~2013년)으로 구분하여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Chow Test를 수행함
  - 그 결과 “두 기간 간의 미국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90%의 신뢰수준에서 기각함

5) 미국의 대네덜란드 투자액이 총해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4.5%, 대룩셈부르크 8.6%, 대프랑스 7.9%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간의 동조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해짐)
  - 전 기간(2000~2013년)을 대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7%p 상승함
  - 금융위기 이전 기간(2000~2008년) 동안에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5%p 상승함
  -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9~2013년) 동안에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8%p 상승함

< 기간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비교 >

(단위 : %p)

구분	전기기간 (00 ~ 13년)	
	00 ~ 08년	09 ~ 13년
미국 경제성장률 1%p 상승 ↓ 한국 경제성장률 상승 정도	0.47***	0.5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 및 \*는 해당 계수가 각각 99% 및 90%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참고] 미국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 현대경제연구원은 <식 1>의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미국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cdot \text{<식 1> } GDP^{KR}_t = \gamma + \zeta_1 \cdot GDP^{US}_t + \zeta_2 \cdot REER^{KR}_{t-1} + \zeta_3 \cdot EXPTR^{KR \rightarrow US}_t + \zeta_4 \cdot EXPTR^{CN \rightarrow US}_t$$

- 변수 명칭은,

$GDP^{KR}_t$  : t기의 한국 실질GDP 증가율(전년동분기대비)

$GDP^{US}_t$  : t기의 미국 실질GDP 증가율(전년동분기대비)

$REER^{KR}_{t-1}$  : t-1기의 한국 실질실효환율

$EXPTR^{KR \rightarrow US}_t$  : t기의 한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국 수출액 비중

$EXPTR^{CN \rightarrow US}_t$  : t기의 중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국 수출액 비중

6)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14년 1월, 「미국 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용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 미국의 경제성장률,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한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국 수출액 비중, 중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국 수출액 비중 등의 변수를 사용하는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함.

### 3. 한·미 현안 과제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 문제, 한일 관계정상화, 원자력협정 개정, 셰일가스 등 자원의외교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 필요
  
- 첫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 문제
  - **TPP 참여** :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TPP 참여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 갈등 우려
    -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통상 이익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TPP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 중임
    - 특히 중국에 대한 통상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참여를 했고, 더 나아가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
  - **TPP 불참시 불이익** : TPP에 불참할 경우 세계최대무역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과 수출경쟁력 저하 및 대중 통상 관계 악화 등 우려
    - TPP 출범시 세계 최대의 단일자유무역시장이 될 전망이며, 협정 불참으로 인해 최대 시장 상실 및 무역 시장에서의 소외가 우려
    - TPP는 사실상 미-일 FTA(미국과 일본의 GDP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로 간주되며, 엔저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 큼
  - **시사점** :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해 한미 정상간의 타결이 요망됨
    - TPP 참여를 위한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국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피해 보전 방안을 사전에 수립
    - TPP 참여시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허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
  
- 둘째,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 표현
  - **한일 관계 현황** :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양국간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
    - 아베내각 출범 이후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속화하는 등 잇따른 우경화 움직임으로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
    - 지난 헤이그 핵안보 회의에서 미국의 중재하에 한·미·일 3국 정상간의 회

- 합시에도 한·일 양국의 관계는 냉각상태를 유지
- 다만 최근 한·일 위안부 문제를 단독으로 논의하는 양국 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작
- **미국 입장** :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외교 안보적 이익을 위해 한일 관계의 회복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
    -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냉각은 미국의 지역내 군사·외교 이익과 상충
    - 특히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해야 하는 미국으로서 일본은 대중국 전략의 핵심이므로 일본의 우경화를 어느정도 묵인하는 입장
    -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시 일본과 한국의 갈등을 중재하고,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
  - **일본 입장** :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다양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 전달해 올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한일 관계의 회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 또는 이슈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

### ○ 셋째, 원자력협정 개정

- **한미 원자력협정<sup>7)</sup>** : 경제 및 산업 관점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과 관련된 연구개발 공조 체계 구축
  - **한국** : 원자력의 수출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 **미국** : 핵 비확산정책 관점에서 원자력협정을 바라봄. 미의회는 '골드스탠다드<sup>8)</sup>'를 모든 원자력 협정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핵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축재처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임

7) 한미 원자력협정은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2014년 3월 통과됨. 한·미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교환각서」가 2014년 3월 18일 발효.

8) 미국은 2009년 UAE와 원자력 협정을 맺으면서 재처리와 농축권리를 배제한 협정을 체결. 핵비확산론자들은 이를 가장 이상적인 협정이라며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름.

- 시사점 : 한미 양국간의 원자력협정에 대한 시각차, 핵안보 관련 글로벌 공조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한국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트로이카 국가 중 하나로 핵비확산 모범국임. 또한 원자력 관련된 한국의 높아진 지위를 반영하여 기존 원자력협정 보다 개선된 협정이 기대
  - 한편, 베트남이 농축재처리를 포기하는 '골드스탠다드'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함

#### ○ 넷째, 자원외교 협력 강화

-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의 중심지로서 전세계 셰일가스 생산량의 90%이상을 생산
  - 미국은 2016년부터 천연가스 순수출국으로 전환되며 2030년에는 약 3.5조 입방피트 규모의 천연가스를 세계로 수출할 전망<sup>9)</sup>
  -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012년 평균 백만 BTU당 2달러 수준으로 하락. 반면, 유럽과 일본의 천연가스 가격을 각각 11.0달러, 16.7달러로 상승
  -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조업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에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이러한 미국 셰일가스 부흥으로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 미국 시장에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 셰일가스가 글로벌 에너지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부상
- 시사점 : 자원 외교 노력 강화를 통해 셰일가스 수입의 안정화 유도
  - FTA 체결국으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 미국은 FTA 체결국에게 비체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셰일가스 수출 승인<sup>10)</sup>
  - 미국과 셰일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약 마련
  - 중장기적으로는 셰일가스 채취 관련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함
  - 또한,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 형성 **HRI**

임희정 연구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9) 세계 천연가스 총생산량은 2010년 3.3조 입방미터(m<sup>3</sup>)에서 2035년 5.0조 입방미터(m<sup>3</sup>)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Nov. 2012).

10) 한국은 미국산 셰일가스를 2017년부터 2036년까지 연간 350만 톤 도입하기로 함(한국은 연간 3,000만 톤 정도의 천연가스 수입함).